

육아재정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육아지원 재정 확대 결과,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 아동대상 차등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은 2002년 19만6천명에서 2005년에는 57만 1천 명으로 3.3배나 증가되었다. 2006년부터 실시된 농어촌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도 육아지원의 의미 있는 내용 중 하나다. 2006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를 위한 기본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유아(3~5세) 기본보조금은 향후 1년여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한 후, 본격적인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립) 육아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과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제도의 도입은 육아시설의 주류를 차지하는 민간(사립)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국공립과 사립(민간)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육아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 수요자들의 재정지원 증가에 상응하는 정책만족 체감은 궁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육아예산이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에서도 육아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육아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예산 역시 앞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육아지원 재정으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육아재정 지출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껏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비형평적 재정지원 구조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공립과 사립(민간)육아시설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사립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가격

격차, 교사급여의 격차 구조, 가계소득 대비 비형평적 육아서비스 이용료 지불 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비형평적 재정지원 구조의 개선과 함께 이제는 육아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요자에게 재정이 차등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편부, 편모, 취업부모의 자녀들은 전업주부의 자녀들에 비해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의 육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현행 제도는 이용시간 구분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서만 차등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구조이다. 육아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을 이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취업모 등 육아서비스가 더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육아서비스 이용시간과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는 육아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육아재정 지출의 효율성은 육아재정 지출의 진정한 목적을 고려하여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육아지원 정책은 건강한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여성경제활동과 출산력 제고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육아재정 지원의 효율성은 주로 출산력과 여성경제활동 제고 목표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다. 그러나 육아재정 지출의 효율성은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즉 생후 초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의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 임산모와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및 식품지원 정책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임산모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기초식품 품목을 엄격히 지정하여 구매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돋는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쿠폰으로는 설탕과 초콜릿이 함유된 시리얼이나 우유, 그리고 중성지방이 함유된 가공 치즈를 살 수 없다.

불량식품 구매에 정부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질의 품목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WIC의 이러한 지원 원칙은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재정이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좋은 예다. 재정지원의 형평적 배분만을 중시한 나머지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육아서비스의 선택권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양질의 보편적 육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이야말로 정책목표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육아정책 수요자간 공정성을 느끼도록 재정배분방식이 개선되고, 장학지도와 평가인증 등으로 육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검증된 보편적 육아시설 이용을 유도하는 육아재정 지출방식이 정착되어야 할 때이다.